

장동진

Future than Present!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6길 27-2 201호
1994년 01월 23일
010-5016-7756
jdwl27@naver.com

관련 활동

WAC(Wastebasket Alarm & Controller : 휴지통 알람 & 컨트롤러)

2017년 3월 ~ 6월

휴지통 안에 있는 쓰레기를 감지하여 알람이 울리고

휴지통 앞에 사람이 있으면 손의 제스처를 인식하여 뚜껑을 열고 닫음

졸업 작품 : CB(Cane for the Blind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팀장

2017년 3월 ~ 12월

지팡이 앞에 사물을 감지하여 가까울수록 지팡이의 진동 간격이 짧아짐

집에서 지팡이가 주변에 없어도 특정 명령어를 외치면 소리가 나도록 설계



WAC



CB

언어 및 기술

- ❖ Java
- ❖ JavaScript
- ❖ Oracle
- ❖ Tomcat
- ❖ Json
- ❖ Ajax
- ❖ Mybatis
- ❖ Spring Framework
- ❖ Spring Boot
- ❖ Cent OS
- ❖ AWS
- ❖ Jenkins

[과정평가형] 자바(JAVA) 웹개발과정

2020년 6월 ~ 2020년 11월

교육 내용

- Java 및 웹 개발 기초
- SQL을 이용한 DB 활용
- JavaScript와 Json, 그리고 Ajax를 이용한 웹 통신
- Mybatis를 활용한 SQL
- Spring Framework 및 Spring Boot 활용
- Cent OS와 AWS를 사용하여 서버 구축
- Jenkins를 활용하여 서버 관리

학력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응용컴퓨터공학과 - 학사

2012년 3월 - 2018년 2월

자기소개서

(SDS 양식)

1. 본인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속 가상인물도 가능) (1500자 이내)

[속기사, 개발자를 꿈꾸다!]

전공자로서 대학생활 4년, 개발 관련 지식보다는 관련 없는 과목 위주의 강의로 대학교를 온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3학년 2학기 때 속기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4학년부터 교수님에게 학업 포기를 선언하며 속기에 전념했습니다. 어떻게든 학점만 채우며 졸업을 한 저는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람처럼 속기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기사로 활동하던 중 같은 과 친구들이 개발자 일을 하는 것을 보며 “혹시 나도 다시 개발자의 꿈을 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찰나에 비전공자 친구가 저에게 C 언어를 질문할 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코드를 보면서 이상하게 지마도 생기고 대학 때도 별로 없었던 개발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처럼 얼마 후에 한 달 계약하게 된 근무처의 사무실이 메르츠타워 웹 개발 팀 바로 뒷자리였습니다. 항상 일을 하면서 개발 팀 쪽에서 보이는 이클립스 창이 계속해서 코딩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 다시 개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계약이 끝나고 속기는 접어둔 채 무작정 집 근처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수료한 이 과정을 듣게 됐지만 책 위주로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운 좋게도 책 위주가 아닌 실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과 기술을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 괜찮은 개발자로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지금 이렇게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금까지 경험해 본 일 중 본인에게 가장 새로웠던 분야에 도전한경험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소프트웨어분야제외)
(1000자 이내) - 해당분야를 접하게 된 동기, 가장 어려웠던 일과 그것의 해결과정, 결과와 아쉬운 점, 해당경험이 향후 소프트웨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포함

[꼼꼼함의 대명사 속기사! 개발 시에도!]

속기사를 알게 된 건 대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대학 교육에 흥미를 잃어가며 “나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직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바로 속기사였습니다.

다짜고짜 속기사 협회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난생처음 보는 키보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뒤로하고 속기를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키보드 배열, 그리고 시험 시간이 고작 5분이라는 것은 큰 압박이었습니다. 키보드 적응은 시간의 문제였지만, 5분이라는 시간은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누나에게 속기 시에 뒤에서 지켜봐 달라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시험의 긴장을 뛰어넘어서 시험의 긴장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제가 오자가 많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속기사라는 직업은 빠른 시간에 타이핑을 해야 하고 오자가 적어야 하는데 속도는 빠르지만 오자가 많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정확도 위주로 천천히 연습을 하게 됐고 예상보다 단시간에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단순히 빠르게 치는 직업이 아니라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하여 비약적으로 실력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과거의 기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로서 오류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교정 능력이 개발 시 오류를 꼼꼼하게 찾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 그것에 맞는 해결책을 속기를 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들이 개발자로서도 미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3. 추가 예정

수행 프로젝트

◆ 다국어 채팅 구현 / JAVA

| | | |
|--|---------|--------------------------|
| | 개인 프로젝트 | |
| | 개발기간 | 2020.10. 20 ~ 20. 12. 8. |
| | 개발목표 | |
| | 구현설명 | |

◆ 예약 사이트 구현 / JAVA

| | | |
|--|--------|------------------------------|
| | 팀 프로젝트 | |
| | 개발기간 | 2020. 10. 01 ~ 2020. 11. 22. |
| | 개발목표 | |
| | 구현설명 | |

추가 예정